## 기획 연재

# 孝와 烈에 관한 瞑想 ㊷

權 五 焄
本紙편집인

### 264. 군량척처君良斥妻

유군량劉君良은 중국 당唐나라 때 요양饒陽 사람인데 4세世가 동거하면서 족형제간族兄弟間에 지내기를 동기간과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집의 문안에 있는 것은 한 말 곡식과 한 자 비단도 사유로 하는 게 없었다.

수隋나라의 대업大業(수隋 양제煬帝 : 605 616) 연간에 흉년과 기근이 드니 그 아내가 각기 따로 살기를 권하면서 뜨락에 서 있는 나무 위의 까마귀 새끼를 둥지에서 꺼내 달리 바꾸어 넣어 놓았다. 그러자 까마귀가 서로 제 새끼가 바뀌었으므로 싸움을 벌이고 새끼들은 울어대어 시끄러우니 집안 사람들이 괴이하게 생각했다. 이에 그 아내가 말하기를 ‘ 천하가 대란이라 새 짐승도 저렇게 서로 용납치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 하니 군량이 이를 듣고 즉시 형제가 별거를 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기를 한 달쯤 해서 군량이 그게 아내의 계교였음을 몰래 알아내고는 인하여 아내를 쫓아내면서 ‘ 네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다 ’ 하고는 형제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이를 고하고 다시 모아들여 동거하였다. 정관貞觀(당 태종太宗 : 627 649) 6년(632)에 이행異行을 하였다 하여 그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였다.

제목 군량척처君良斥妻는 유군량이 아내를 내쳤다는 뜻이다. 유군량은 수隋나라 말엽에 천하가 대란에 빠지자 향당 사람들과 더불어 보루堡壘를 쌓고 지켜냈으며 이를 의성숙義成塾이라 이름하였다. 그 집안이 의절儀節을 체득한 것으로 일컬음을 받았고 정려旌閭를 받은 사적이 신구의 당서唐書에 실려 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세동산업갱동거世同産業更同居 : 대를 이어 산업을 같이 하고 또한 동거하여

사대상전불소소四代相傳不少疎 : 4대가 서로 전하면서 조금도 소활함 없는데

일부사모영간아一婦邪謀寧間我 : 한 부녀 삿되어 어찌 우리를 이간하는가

종교형제복여초終敎兄弟復如初 : 끝내 형제로 하여금 전과 같이 돌보게 하였네

두속기수감자사斗粟其誰敢自私 : 한 말 곡식인들 뉘 감히 사사로이 하랴

요동문내급한기要同門內給寒飢 : 요긴한 것 집문안에서 춥고 주림 막는 바라

도도호화사처자滔滔好貨私妻子 : 넘쳐나게 좋은 재화 처자에게만 사사로이 함

시차여하불뉵니視此如何不□□ : 이를 보고 어찌하여 부끄러움 없으리오

### 265. 공예서인公藝書刃

장공예張公藝는 당唐나라 때 수장壽張에 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집에 9대에 걸쳐 한 집에서 모든 자손이 동거하여 대가족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그 집은 북제北齊와 수隋、당唐나라 3조朝에 걸쳐서 정표旌表되었다.

당의 고종高宗이 하늘과 땅에 제사지내는 봉선封禪을 하고자 태산泰山에 행차했다가 그 집에 들러서는 장공예를 불러 보고 그가 능히 일족을 화목케 하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장공예는 지필을 청하여 거기에 참을인忍자를 1백여 개를 써서 대답으로 올렸다. 대개 그 뜻은, 종족宗族이 화합치 아니하는 것은 존장尊長이 혹은 의식衣食을 고르지 않게 하는 데서 말미암고, 낮고 어린이의 예절이 혹 갖추어지지 않으면 서로 책하고 원망하여 어그러지면서 다투니 진실로 서로가 참기를 능히 하면 집안의 도리가 옹목雍睦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제목 공예서인公藝書忍은 장공예가 참을인자를 썼다는 뜻이다. 장공예의 이야기는 구당서舊唐書와 당서唐書에 올라 있는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동양의 고사故事에서 수없이 회자되어왔다. 당 고종은 그를 칭찬하여 겸백帛을 하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율곡栗谷 이이李珥도 장공예의 이 고사를 기려 해주海州의 율곡에서 자기로부터 9세가 동거하는 터전을 차리려는 이상향의 구상을 한 바 있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세인분할부동려世人分割不同廬 : 세상 사람들 재산 분할하고 한 집에서 살지 않는데

독유장공구세거獨有張公九世居 : 홀로 장공이 9세를 함께 살았네

제문유래능목도帝問由來能睦道 : 황제가 능히 화목하는 도리 유래를 물으니

단장인자백래서但將忍字百來書 : 다만 참을인자 백번을 써 올렸네

예엄비유결응빈禮嚴卑幼缺應頻 : 낮고 어린이에 엄격한 예절 결여되기 쉽고

존장의찬혹미균尊長衣餐或未均 : 존장이 내리는 의식이 혹 고르지 못하면

인불출언상책망忍不出言相責望 : 참지 못하는 말이 나와 서로 책망하나니

이이가도자상친怡怡家道自相親 : 기꺼이 즐기는 가도 서로 친함에서 비롯하네

### 266. 진씨군식陳氏群食

진긍거陳兢居는 중국 송宋나라 때 강주江州 사람인데 13세가 동거하여 장유의 가족이 7백이었다. 노복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몸소 하며 상하가 늘 연목 睦하니 그 사이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매양 밥을 먹을 때는 너른 당堂에 무리로 자리잡고 앉되 미성인未成人은 별도로 한 자리를 만들어 거기에 모여 먹게 하였다. 그 집에 또한 기르는 개가 백여 마리인데 큰 구유를 만들어 함께 모여 먹게 하니 그 개의 무리도 개중에 하나가 오지 않으면 모두가 먹지 않고 기다렸다.

제목 진씨군식陳氏群食은 진씨네 집안 일가족이 무리로 밥을 먹었다는 뜻이다. 13대에 걸쳐 700인이 한 집에 동거하였다니 이는 그 집이 한 이문里門안에 큰 촌락을 이루었을 것이고 노비나 일꾼을 사는 일도 없이 자급자족하였다니 아마 이스라엘이나 공산주의 집단농장의 예에나 견주지 않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유교 속에 있는 공산共産의 이념이라고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칼 마르크스가 공자孔子에게 담판을 하러 갔다가 그 이론이 너무 지독해서 그만 손을 내젓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칠백여인미인분七百餘人未忍分 : 7백여인이 차마 나눠지를 못하여

고증숙질기잉운高曾叔姪ㄱ仍雲 : 고증조부모에 숙질간에다 칠팔대손이

십삼사세동취찬十三嗣世同炊 : 13세 대를 이어 한 부엌의 밥을 먹는데

매식장연열작군每食長筵列作群 : 매끼니에 긴 자리를 깔고 무리로 열을 이루었네

돈목가풍세소숭敦睦家風世所崇 : 돈목한 가풍은 세상이 높이는 바요

선선장유일당중詵詵長幼一堂中 : 수많은 노소가 한 당에 모였는데

욕지감화명명리欲知感化冥冥理 : 어둡고 심오한 감화의 이치 알고 싶거든

간취조중백견동看取槽中百犬同 : 구유에 모이는 백 마리 개도 한가지임을 보시라

### 267. 중엄의장仲淹義莊

범중엄范仲淹은 송宋나라 오현吳縣 사람인데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족인族人에게 더욱 두터이 대하였다. 벼슬에 나가 귀히 되자 그 고향 오현의 고소姑蘇 근곽에 좋은 전답 수천 묘畝를 사들여 의장義莊을 삼고 여러 붙좇는 겨레붙이의 빈한한 자를 먹이면서 족인 가운데 나이 들고 어진 자 1인을 택하여 출납을 주장케 해서는 한 사람에 하루 쌀 한 되를 지급하고 세의歲衣로는 해마다 명주 한 필을 주게 하며 시집장가가고 상을 당해 치장하는 일에 다 넉넉히 공급케 하였다.

범중엄이 재상이 되어 정부政府에서 나와 고향 고소에서 선대 묘소에 소분례掃墳禮를 행하게 되어서는 집의 바깥 곳간에 있던 비단 3천 필을 찾아내 장리掌吏로 하여금 친척과 여리閭里의 지구인知舊人을 다 기록케 하여 크고 작게 모두 흩어 주게 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는 말하기를 ‘ 종족과 향당 사람들이 내 어려서부터 나서 자라나 배우고 벼슬하는 것을 보며 나를 위해 도와주고 나를 기쁘게 하여 주었으니 내가 이를 어찌 다 보답하리오 ’ 하였다.

제목 중엄의장仲淹義莊은 범중엄이 의장義莊을 설치했다는 뜻이다. 의장은 의롭게 쓰는 전장田莊, 즉 농장을 말한다. 의는 의연義捐, 즉 의롭게 던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의창義倉이라 하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의롭게 쓰는 곡식 저장고가 된다. 의영고義盈庫도 의롭게 쓰기 위해 채워 놓는 창고이다.

범중엄은 자字가 희문希文인데 그 자의 뜻처럼 글배우기를 희망하여 어려서 부모를 여읜 고아가 되었으나 힘써 공부하여 대중상부大中祥符(송 진종眞宗 : 1008 1016) 간에 과거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고 비서각秘書閣 교리校理로 나가 인종仁宗 때 개봉부開封府의 권지사權知事를 거쳐 지요주사知饒州事로 옮겼다. 원호元昊가 모반하였을 때는 용도각龍圖閣 직학사直學士로서 하송夏 과 함께 섬서陝西를 경략하였는데 호령이 엄명嚴明하여 하인夏人이 감히 범하지 못하고 강인羌人은 그를 용도노자龍圖老子, 하인은 소범노자小范老子라 불렀다. 곧 소환되어서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가 되고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올랐다가 다시 나가 하동河東과 섬서 지방을 선무宣撫하고

15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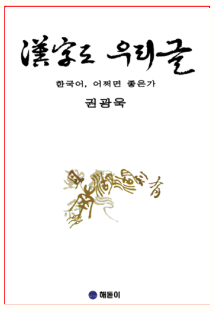
능동춘추에 10년을 연재해온 천착물
한권의 단행본으로 발간

漢字도 우리글

한국어 어쩌면 좋은가
權光旭

서두를 한번 읽기 시작하면 몰랐던 우리 말글의 병을 자각하며 잠재의식의 회오리에 말려든다. 일독을 마치고 거기에서 벗어나노라면 우리 어문의 괴저와 뇌질환으로부터의 출구가 선명히 드러나 보인다.

신국판 403면、값 1,300원、서점에서 구입
도서출판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 파크뷰타워 807호 우110-044
전화 02) 734-3085、732-9139 / 전송 02) 738-8935
전자우편 haedogee@kornet.net




한자를 퇴출하고 박멸한 자리에 영어휘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며 거개의 우리말 어휘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법만 따라하느라 왜곡시켜 한국어는 뇌경색에 걸려 빈사상태이다. 영어를 국어화하기 앞서 한자부터 한국어에, 광의의 한글에 포함시켜야 한다.